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4일 (음 5월 9일 辛未)

48년생 나사지 말고 잠자코 보고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60년생 지극히 상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72년생 영동한 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42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의 역할이 크다. 54년생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포착할 준비를 하자. 66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자연스런 연기 위해 법정 공부 많이 했죠”

윤계상, 영화 ‘소수의견’서 국선 변호사로 변신

가수로 데뷔해 연기 경력이 어느덧 10년이 넘는 서른일곱 살의 배우 윤계상에게 영화 ‘소수의견’이 맡긴 역할은 법정 안팎에서 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나가는 젊은 변호사다.

인물을 둘러싼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므로 배우에게도 점점 감정이 쌓였지만, 감독의 주문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윤계상은 각 캐릭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유해진 선배가 ‘이기’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냐고 물더니 한 달 동안 눈만 뜨면 그 대사만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난 배우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연습을 좀 했어요. 법정용어들도 입에 붙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했구요.”



“저희 노래 들으면 ‘심쿵’ 할거예요”

AOA, 8개월 만에 컴백... 발랄하고 시원한 ‘하트 어택’

“‘심쿵해’가 2015년 여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셔츠보다는 시원하고 발랄한 모습 준비했어요.” (초아, 지민)

이날은 선배이자 라이벌인 씨스타가 신곡 ‘셰이크 잇’(Shake It)을 발표했다. 이들 중 가장 데뷔연도가 느린 ‘막내’ 에이오에이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내세우는 무기는 무엇일까.